

우크사뤼시와 MOU 체결 및 Tashkent Law Spring 참석 성과 공유

우즈벡과 같이 체제전환국 또는 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가와의 교류협력사업은 상대국가의 요청에 따라 법제도 자문,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인력교류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향후 우즈벡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협력사업 아이템을 적절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기평(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부연구위원)

2019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및 출장단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교류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가사회대개발 계획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Yuksalish Nationwide Movement(이하 우크사뤼시, Yuksalish) 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였다. 다른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1회 International Legal Forum «Tashkent Law Spring»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입법 관련 경험을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관료, 학계, 산업계 및 외국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었다.

타슈켄트 방문 첫 날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롯데시티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크사뤼시와 한국 법제연구원 간 MOU 체결식



우크사뤼시와 한국법제연구원 간 MOU 체결 관련 방송인터뷰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발표 사진



포럼에서 축사중인 우즈벡 법무부 장관



포럼 전체 회의 풍경

할 수 있다. 이는 호텔 로비에서 많은 한국인 여행자들, 기업 관계자들을 보는 것으로 바로 확인되었다. 우즈벡 거주 고려인 18만 명, 우즈벡 거주 한국인이 3천 여명에 이르는 등 한국과 우즈벡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 2일차에 우크사뤼시^{Yuksalish} 사무실에서 양측 간 MOU 체결식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크사뤼시 의장이자 우즈벡 의회 의원인 Akmal 박사가 참석해 법제연구원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양측의 기관소개, MOU 서명식, 선물증정, 기념촬영이 진행된 후 스탠딩으로 자연스럽게 향후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환담 도중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우즈벡 방송국 기자가 이익현 원장에게 이번 방문의 목적과 MOU 체결의 의의 등에 관한 인터뷰 요청을 하여 진행됐다. 사전에 우리측에 공지되지 않은 내용이라 당황한 측면이 약간 있었지만 이익현 원장은 여러 차례 우즈벡을 방문한 경험과 방송인터뷰 경험이 있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해당 인터뷰는 당일 밤에 방송되었음을 저녁 만찬에서 Akmal 의장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다. 타국의 작은 국책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에 대해서도 우즈벡 방송사가 보도할 정도로 우즈벡 정부 내에서 우크사뤼시의 위상이 높고, 또한 우즈벡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MOU 서명식 후 진행된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올해 8월 이전까지 Akmal 의장 등 우크사뤼시측이 법제연구원을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우크사뤼시의 한국 교류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제처, 법무부 등 한국의 유관기관 방문 및 교류협력을 법제연구원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 양측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체류연구 등 조건이 되는대로 양 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편의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우즈벡 방문의 두 번째 중요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International Legal Forum «Tashkent Law Spring»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간 우즈벡 엑스포센터에서 “급속한 현대화 시대에서의 법 Law in an era of rapid modernization”이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국제법률포럼에는 우즈벡 법무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40여 개국의 정부관료, 학자, 산업인, 시민단체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행사 첫날 오전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는 우즈벡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 한국 법제처 처장의 축사, 싱가포르 법무부 차관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되었다. 이중 우즈벡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즈벡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회개발 과정에서 법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우즈벡의 법제구축에 외국의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 전체회의에서 주최측은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제공시스템 등을 영상으로 소개하였는데, 아직 국가 전체적으로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민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체제전환국으로서 국가사회대개발에 있어 법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 첫날 오전의 전체회의 이후 국제투자, 법치(rule of law), 민간협력사업(PPP), 공공행정 등 다양한 주제로 20여 개 분과회의가 하루 반 동안 진행되었다. 이 중 행사 2일차 오전에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 이익현 원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입법절차상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the Law-Making Process in Korea)”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법령편집기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한국 법제처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발표주제는 주최측인 우즈벡 법무부가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발표가 끝난 후 법령편집기로 새로운 법령을 어떻게 조문화하고 신규대조표를 만드는지를 담은 동영상도 방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즈벡측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발제자로 참석한 벨라루스 법무차관 등 다른 국가의 발제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원장의 발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벨라루스의 경험을 소개한 Sergei Zadiran 벨라루스 법무부 제1차관은 즉석에서 이 원장에게 한-벨라루스 간 교류협력을 제안해 오는 등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즈벡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과의 교류협력 기회도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우즈벡 정부는 이번 제1회 국제법률포럼을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로 기획하고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우즈벡의 국가사회개발에 전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외국인의 우즈벡 투자를 독려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즈벡 방송사는 외국인 연사들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적극 진행하였으며, 이익현 원장 역시 발제가 끝나자마자 발제 내용과 관련한 방송인터뷰 요청을 받고 이번 방문 일정에서 예정에 없던 두 번째 방송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을 위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의외의 방문 성과가 있었는데 바로 우즈벡 법무부측이 방문기간 내내 법제연구원 일행의 입출국 수속부터 모든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틈틈이 진행한 법제연구원과 우즈벡 법무부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였다. 우즈벡 법무부 소속의 Nodir 국제협력과장이 전담해서 우리를 돌봐주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다 포럼 행사 준비로 매우 바쁜 상황에서도 Nodir 과장이 세심하게 우리 방문단을 챙겨줘서 매우 편안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Nodir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Nodir 과장이 우리를 담당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한국에서 몇 년간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에 한국의 중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Nodir 과장은 향후 법제연구원과 우즈벡 법무부 간 교류협력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 6월에 Nodir 과장이 한국을 방문하면 우즈벡 방문기간 동안 우리 방문단이 받았던 배려에 보답하고 법제연구원을 포함한 한국의 유관기관과 우즈벡 법무부 간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우즈벡 방문의 마지막 일정은 우즈벡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같은 기간에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 법제처와의 간담회 행사였다. 같은 호텔에 묵고 제1회 국제법률포럼에 함께 참석하면서 간간히 우즈벡 관련 협의를 하기도 했지만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양 기관의 방문단 모두가 모여 이번 우즈벡 방문 기간 동안 얻은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우즈벡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우즈벡 간 교류협력사업은 이제 초기 단계로서 한 기관만의 힘으로는 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내 유관기관 또는 산학연 협력은 매우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공유되었다. 이에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법제처와 법제연구원 간 관련 협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우즈벡 방문은 향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향후 진행할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내실있는 준비를 해야 것이다. 첫 번째로, 실질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외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준비와 투입이 있어야 하므로 연구원 내에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이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시의적절하고 수행가능한 교류협력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우즈벡과 같이 체제전환국 또는 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가와의 교류협력사업은 상대국가의 요청에 따라 법제도 자문,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인력교류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향후 우즈벡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협력사업 아이템을 적절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많은 대외교류협력사업이 말의 성찬 또는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담당자가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 또 하나의 실패사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핵심 국가로서 우즈벡을 상정하고 우리 기업들 역시 우즈벡에 적극 진출하고, 우즈벡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즈벡 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협력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은 성공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원내외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내실있게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우즈벡과의 교류협력사업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진될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원내외 열정적인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면서 이번 방문 성과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